

1. 입헌군주제와 의회제도의 수용 문제

1898년 량치차오와 캉유웨이를 중심으로 공양학파가 변법운동을 추진하였다. 이들의 최종 목표는 입헌군주제의 도입이었다. 그러나 서태후 등의 수구세력이 광서제를 유폐한 사건인 무술정변이 일어나면서 변법운동은 실패로 끝나게 된다. 서태후는 이후 광서신정을 추진했는데, 이들 수구세력 또한 최종적으로 입헌군주제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약 10년 후 광서제와 서태후가 사망하고 청나라까지 멸망하면서 완전히 실패하였다.

공양학파와 수구세력은 서로 대적하는 관계이지만 같은 목표를 갖고 개혁을 시도하였다는 점이 매우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래서 과연 입헌군주제의 장점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첫째, 입헌군주는 정치를 초월해 존재한다.¹⁾ 입헌군주제의 군주는 헌법 아래 존재하는 군주이기 때문에 인종, 종교, 특정 정당, 출신 세력 등에 얽매이지 않는다. 따라서 당시 영국, 프랑스, 일본과의 계속된 전쟁에 지쳐있던 중국 국민들을 단합시키기에 적합한 체제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 둘째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군주제는 이러한 많은 변화 속에서 전통 및 연속성을 상징한다. 황제 체제는 평화의 시대에는 전통이 잘 유지될 수 있지만, 근대 중국과 같은 수많은 변화 속에서는 황제 체제 또한 안정감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군주제의 군주는 인종이 바뀌거나 정당이 바뀌어도 헌법 아래 있는 ‘군주’라는 명목은 계속된다. 따라서 기존의 황제 체제보다 훨씬 안정감을 줄 수 있다. 량치차오와 캉유웨이, 그리고 서태후는 서로 다른 정치적 목적을 갖고있었을지는 몰라도, 이러한 입헌군주제의 장점에 모두 동의했을 것이다.

2. 혁명과 개혁, 변혁기에서 어떤 것을 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가?

국가적 위기 속에서 변혁을 추진해야 할 때, 과연 혁명과 개혁 중에서 무엇이 더 합리적인 선택일까? 우선, 역사를 먼저 살펴보자. 중국에서는 1861년 양무운동, 1898년 변법자강 운동, 1901년 광서신정의 세 차례 개혁을 모두 실패한 후 1911년 신해혁명을 성공시켜 중화민국이라는 공화정을 수립하였다. 일본에서는 1970년대 메이지유신이라는 혁명이 큰 성공을 거두었다. 반면 한국에서는 1894년 갑오개혁이 실패하였다. 역사적으로는 분명히 개혁보다는 혁명이 더 효과적으로 보인다. 세 나라 모두 개혁은 대부분 실패하고 혁명은 성공을 거둔 이유는 무엇일까?

언뜻 보기에는 혁명이 더 위험한 것처럼 보인다. 현재의 정권 자체에 반기를 들고 체제를 뒤엎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혁 또한 분명히 그만한 위험성이 존재한다. 개혁을 반기지 않는 수구세력과 대적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 체제에 본질적으로 찬성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이 대적하는 ‘혁명’, 그리고 현 체제를 유지하되 특정한 면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외치는 세력과 변화를 반기지 않는 세력이 대적하는 ‘개혁’, 이들은 사실 개념적으로 변화의 범주만 다를 뿐, 위험성 면에서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혁명과 개혁의 가장 큰 차이는, 혁명의 성공 세력은 합법 세력이 되고 그와 대적하던 세력은 불법 세력이 되는 반면, 개혁은 어찌됐든 두 세력 모두 정계에 존재하며 작고 큰 권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1) 박희권. (2019.05.06.). “[박희권의 호모글로벌리스 (19)] 입헌군주제의 미래”.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19050658981>

내가 만약 변혁을 추진해야 하는 정치가라면, 혁명을 택하겠다. 나의 신념을 이행하기에는 기존의 수구세력이 최대의 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그 혁명이 성공한다면, 일본의 메이지유신이 중국의 변법운동과 베트남 유신회에, 중국의 신해혁명이 베트남 광복회에 영향을 준 것처럼, 나의 혁명도 후대의 여러 개혁 및 혁명에 모델로 삼을 만한 선례로 작용하기를 바란다.